

사육시설 설치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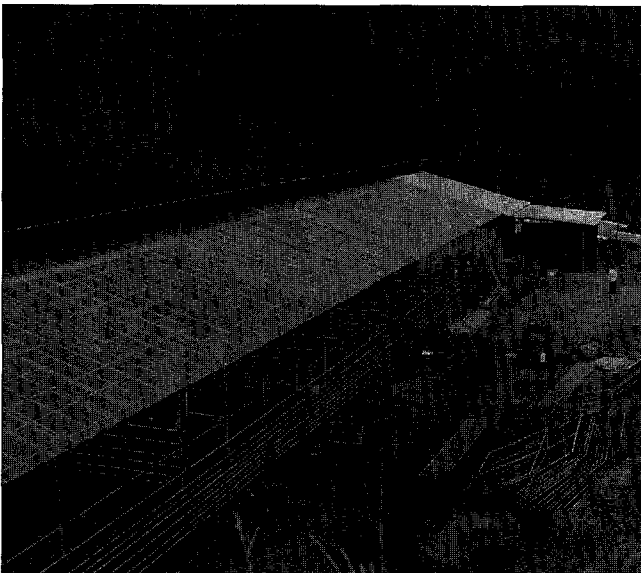
- 기초부터 꼼꼼히 점검, 사육과 환경미화 고려한 개조도 고려해 볼만 -

국내 사슴농장을 돌아보면 개개인 농장주의 개성만큼이나 사슴장도 천차만별로 설치되어 있다. 경기도 가평의 별빛사슴농장(한국양육 5월호 참조)처럼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관리가 편리토록 설치되어 있는 농장이 있는가 하면 몇 년전 망가진 사슴철망을 지금까지 보수하지 않은 채 엉성하게 지어진 사슴장도 만날 수 있다.

엉성한 사육시설은 관리도 불편하거니와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 사슴농장 절각을 대행해 주는 한 양육인은 “절각장은 들쭉치더라도 녹슬고 기운 철망, 분변이 가득찬 사슴장에서 절각을 대행해 주노라면 내가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녹혈을 기다리는 소비자를 볼 낫이 없다”며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해야 하는 양육인이 농장 환경 및 시설관리를 관심밖에 둔다면 사슴 키울 자격이 없다”고 단호히 말한다.

불결하고 엉성한 시설관리는 사슴과 소비자 모두에게 좋지 않다. 사슴에게는 질병과 외상으로 인한 상처 유발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에게는 두번 다시 찾고 싶지 않은 ‘불결한 곳’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사슴사육 시설의 구성과 설치부터 목구 설치까지의 과정을 게재한다. 현재 본인의 농장과 비교해보며 기초부터 꼼꼼히 점검하고 보수가 필





요하거나 개조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를 체크해 관리도 편하고 사슴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 사슴장으로의 탈바꿈을 시도해 보자.

1) 사슴사육 시설의 구성과 설치

사슴사육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본 구상을 해야 한다. 우선 부지의 선정이 끝나면 그것을 어떠한 규모나 방향으로 활용할 것이며 웬스 등은 어떠한 형태로 설치할 것인가 등이 먼저 요구되는 사항일 것이다.

따라서 보다 세심하고 주의깊은 시설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시설의 설치시에 경제적인 면과 모든 관리작업이 단순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웬스 시설이나 급여, 급수시설, 목구수와 크기, 통로, 출입문, 물이시설 및 관리시설 등이 모두 설계단계에서 완벽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하겠다. 시설의 설치에 앞서 몇가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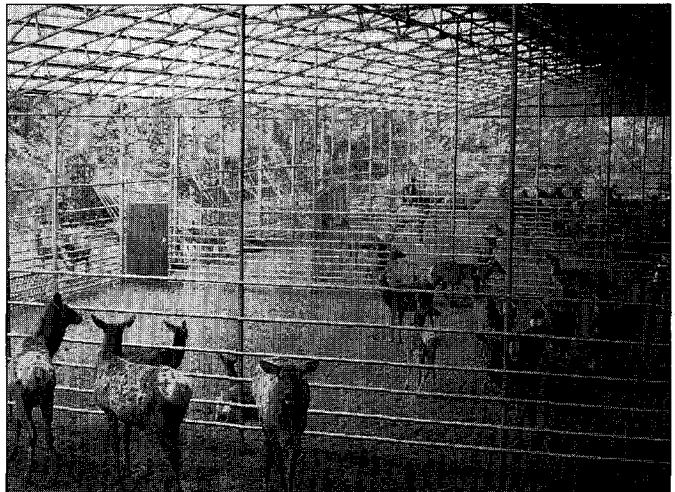
-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목구의 증설이 가능해야 한다.
- 사슴들이 목구와 목구사이를 간단히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슴들이 쉽게 방목장 또는 운동장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 체중측정, 이표장착, 녹용 및 녹혈의 채취, 질병처치 등의 관리작업을 위해 사슴이 목이시설로 쉽게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 급여와 급수시설이 사육 사슴수에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 번식육의 사육시에는 자육의 좋은 발육을 위해 자육전용사료조(이유식 사조, creep feeder)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관리작업의 일관성과 단순화를 기할 수 있는 통합체계 시설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개략도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장기적인 안목의 경영체계의 목적설정이 있다. 무엇보다 경영규모의 확대 및 축소시 신축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경제적인 규모로의 설치가 바람직하다. 작은 목구를 여러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꽃사슴의 경우 1두당 약 10~15평, 엘크의 경우에는 1두당 50~100평의 사육면적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 농가에서 이런 사육면적을 제



공해 주는 곳은 거의 없을 정도로 제한된 지역내에서 집약적 사육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다소 과밀한 상황인데 이런 과밀에 의한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속시설들이 필요하게 된다.

사육시설의 실제 설치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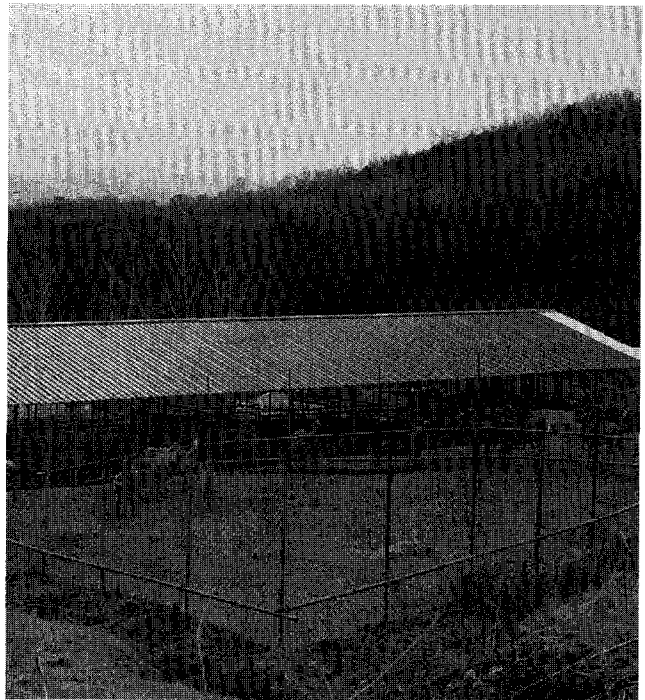
-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치
- 길고 좁은 목구나 원형의 목구가 관리에 편리
- 급수는 모든 목구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 적설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
- 가능한 자족용 목구의 설치가 바람직
- 배수가 불량한 곳에서는 강우에 의한 불결한 환경 조성이 쉽게 이루어지므로 강우를 막을 수 있는 지붕이나 덮개의 설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웬스시설

웬스시설은 사육사슴의 보호는 물론이고 무리의 분리를 통한 적정 사육의 가능성과 사슴사육 시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물이라는 점에서 비용도 많이 들고 웬스의 적합한 설치여부에 따른 작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의 향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웬스작업에 사용되는 철망은 가시가 달린 것을 사용하지 않으며 사육장 전체 둘레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웬스의 높이는

사슴들이 뛰어넘지 못하도록 사육되는 사슴의 종류에 맞춰 적절한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외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육하는 꽃사슴과 비슷한 흰꼬리 사슴과 무스사슴의 경우 대략 2.1m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고 있으므로 꽃사슴 사육시에는 적어도 2.4~2.7m 정도의 높이로 웬스를 설치해야 안전하며 엘크사슴의 경우는 그보다 다소 낮아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웬스작업에 능철철망(8번)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철망의 강도가 너무 센 관계로 종종 사육현장에서 추돌사고 발생이 목격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도 제법 적지 않은 듯하다. 따라서 외국에서 많이 쓰는 부드럽고 보다





탄력이 강한 자재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경우 어린 사슴들이 종종 밖으로 나가려다 목이 걸려 죽는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철망간격을 15cm정도로 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지주대는 약 2.5~3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매우 견고하고 효율적인 웬스설치에 도움이 되는데 콘크리트로 지주대를 지중에 견고하게 매설하는 작업은 웬스의 강건함을 유지하는데는 도움이 되나 이런 경우 작업에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경비가 소요되므로 최근에는 암반층 지반이 아닌 곳에서 지중에 직접 지주대로 쓰이는 파이프를 박고 지주와 지주간을 파이프클립으로 연결하여 사육장 웬스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방식이 폭넓게 응용되고 있다. 이 방식은 설치작업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그만큼 설치비용도 저렴하며 웬스 시설의 확충이나 축소시에 매우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이용도가 높아져 갈 것이다.

4) 목구설치

목구는 사슴들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동이 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소유하고 있거나 선정된 부지에 따라 다소 조건이 변화되겠지만 집약사육 형태에서는 가운데 통로를 두고 양쪽에 목구를 길게 배열하면 사슴의 이동이나 관리작업에 매우 편리함을 가져다준다. 이런 체계에서는 어떤 종류의 사슴에게도 좋은 관리를 위해 유용하게 쓰여진다.

가) 자육용 목구

갓 태어난 자육은 성육에 비해 환경 적응 능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받기 쉬우며 인적이 드문 산지에서는 종종 포식동물의 침입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자육은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별도의 목구를 설치하여 초유를 마신 것이 확인되면 자육용 목구로 이동시켜 사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법은 인공포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야생성이 강한 사슴을 순화하는데 더 없이 좋은 방법이며 사육하는 사람과의 친밀도가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며 크립피딩의 효과도 있어 자육의 성장 발육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육자와 친밀도가 높게 유지된 사슴의 경우 사육자의 접근을 기피하는 다른 개체와는 달리 사육자에게 쉽게 접근하기 때문에 사료섭취 기회가 많아져 섭취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영양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에 녹용생산성도 매우 뛰어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무엇보다 사슴이 사람과 쉽게 친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육 단계에서부터 별도의 자육용 목구를 설치하여 성육들과 분리 사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번식용 목구

번식기에 접어 든 수사슴들은 빈번한 성행동으로 인해 매우 난폭해지며 서로 인접한 이웃목구의 사슴들과는 큰 몸동작을 취하며 과격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웬스 시설

물을 고장내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관리에 어려움을 덜고 웬스 등의 시설보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번식용으로 쓰지 않는 수사슴들은 따로 분리하여 번식용 수사슴이나 암사슴과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 좋으며 이를 위해서는 번식용 목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분리 또는 번식전용 목구의 설치가 어려우면 인접한 목구가 서로 보이지 않도록 천막이나 가리개 등으로 차단을 하거나 외국의 경우처럼 자주 과격한 몸동작 및 충돌행위를 하는 부위에 전기선을 넣어 강한 쇼크를 주는 것도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 관리목구

관리목구는 사슴의 질병치료나 이표정착, 절각작업 등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사슴의 포획이나 고정시 용이하도록 좁고 길게 설치하여 운영하면 바람직하다. 사슴은 비교적 어두운 장소에서 행동이 둔화되기 때문에 일부 양록현장에서 실행하는 것처럼 주위에 칸막이와 지붕을 설치하여 관리목구를 외부와 격리시키고 어둡게 해주면 사슴이 크게 흥분하지 않고 진정될 수 있으므로 용이하게 치료나 절각을 위한 마취, 포박 등을 할 수 있다.

국내의 양록현장은 외국과는 달리 절각시 녹혈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절각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외부사람들이 일부 출입하게 되어 사슴이 외부사람에 대한 거부감으로 필요이상으로 흥분하는 상황이 종

종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마취시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녹혈의 절각시기는 대부분 장마철과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목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양록장에서는 매우 불결한 환경에서 절각작업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관리목구를 반드시 설치하여 사슴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위생적인 절각 및 치료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통로

통로는 관리작업을 위한 통로와 사슴의 이동을 위한 통로로 구분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집약적인 사육형태를 취하는 곳에서는 이들 두가지 용도의 통로가 하나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사슴의 물이를 위해서는 다소 좁은 통로가 좋지만 관리작업을 위해서는 반대로 넓은 편이 좋기 때문에 이 두가지 용도를 모두 만족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주로 관리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치우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에도 출입문과 잘 연계하여 운영하면 사슴의 이동과 물이에 큰 문제는 없으나 가능하면 관리작업을 위한 통로와는 별도로 사슴의 이동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목구**